

# 무주군, 배넛소 지원두수 확대

### 24일까지 신청하면 심의 거쳐 농가당 최대 10두까지 지원

무주군이 한우번식 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배넛소 지원 규모(두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5두 지원하던 것을 농가당 최대 10두까지 지원(군비 4억)할 예정으로, 50두 이하의 한우 사육 규모를 가진 농가 중 배넛소 입식이 가능한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은 5월 24일까지로 배넛소 대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농축산유통과 축산팀 최

중은 팀장은 "50세 이상의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배려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경매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 입식할 예정으로 농가에서는 지원받는 날로부터 30개월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후 6개월령 암 송아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받은 두수대로 군에 상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배넛소 지원사업은 고령화된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해 활력을 심고 반딧불 한우 사육기반을 확대

해 농가소득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3백여 농가에 1천여 두를 지원해 왔다.

농가들은 "갈수록 농사짓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개인적으로는 한 마리 사기도 사실 엄두가 나질 않는데 배넛소가 힘이 많이 된다"라며 "다 해봐야 몇 마리 안 되지만 희망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장수군 홍보 활동 펼쳐

장수군은 15일 장수읍내 일원에서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활동을 펼쳤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보험으로, 군은 주택과 온실의 풍수해보험료를 본인 부담금의

45%~60% 추가 지원하며 현재 군 풍수해보험 주택가입자는 1,677세대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건축물관리 대상에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며,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각각 가입 가능하다. 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은 1년 단위로 소멸된다.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간보험사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며 "많은 군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년간 장수군에서는 25건의 풍수해피해가 발생해 1억3500여 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 반딧불이 보러 떠나는 산골소풍

### 6월 6일부터 8일까지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6.5.~9.)와 함께 하는 반딧불이 신비탐사(운문산 반딧불이)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루 2번 무주예체문화관 PI 주차장 출발, 1회차 20:30~ / 2회차 21:20~)된다.

이번 탐사는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를 통해 제7회 산골영화제를 풍성하게 하고 2019 문화관광 대표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8.31.~9.8)도 함께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현재 반딧불축제 홈페이지(<http://www.firefly.or.kr>)를 통해 사전 접수가 진행 중이다. 탐사 당일에도 산골영화제 안내부스(등나무운동장)에서 선착순 80명까지 현장접수를 받는다.

참가비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1만

원(36개월 미만 무료)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반딧불이팀 이용기 팀장은 "군에서는 현재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출현 개체수와 탐사환경을 조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다량 출몰지역을 염전해서 안전하고 유익한 반딧불이 신비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서 운문산반딧불이와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가 출현한다고 알려진 곳은 대략 180곳으로, 반딧불이 출현 시기인 5월 말 ~ 6월 초(운문산반딧불이), 8월 말 ~ 9월 초(늦반딧불이 / 반딧불축제 기간 중 실시)에는 신비탐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6.5.~9.)와 함께 하는 반딧불이 신비탐사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사)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와 태권도(원) 중심의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태권도 중심의 관광 활성화 약속

### 태권도진흥재단,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와 업무협약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사)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위원장 진용훈, 이하 제전위)와 태권도(원) 중심의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재단 박노신 사업본부장과 제전위 진용훈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협력'과 '반딧불축제 주요 프로그램 장소로서 태권도원 연계'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및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있어 '세계 태권도성지'이자 '2019~20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로서의 태권도원과 각종 태권도

수련·체험 프로그램 등이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진용훈 위원장은 "태권도 진흥·보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상호 협력하여 무주반딧불 축제를 비롯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재단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재단과 제전위가 힘을 합쳐 태권도와 태권도원을 통한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많은 관광객이 태권도원과 무주를 찾도록 노력해 가자"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용담호 맑은 물 보전... 진안 환경리더 양성

### 제11회 용담호 환경대학 개강

진안군은 15일 제 11회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을 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가졌다.

입학식에는 환경대학 수강생 45명을 비롯한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임원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용담호 환경대학은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주민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환경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강좌는 다음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6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환경분야 교수, 유관기관, 환경단체 등 전문가를 초빙해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관리 등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금강순례 등 현장 체험 학습도 진행된다.

김지수 수질개선 주민협의회장은 "자율수질관리의 정착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중에서도 용담호 환경대학 운영을 통한 지역 환경리더 양성이 용담호 맑은 물 보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담호 자율관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책임 있는 수질개선 실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군, 스마트폰 중독 예방 나서 중·고등학생 정신건강증진 교육

진안군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건강한 스마트폰·인터넷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고개들고! 하늘보고!'란 주제로 다음달 18일까지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 증가로 나타나는 정신건강의 위험을 알리고, 과의존 예방과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59세 이용자 중 2.4%(86만 2,000명)는 고위험군, 13.8%(494만6,000명)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과의존 실태에서는 만 3-59세 이용자 중 1.2%(48만1,000명)는 고위험군, 5.6%(220만1,000명)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과 성인용 영상물 구독 등이 뇌 발달에 큰 영향을 주어 사고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학교생활, 교우관계, 학업 등 일상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을 통해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요소들을 예방하고, 건강한 마음과 미디어 기기를 스스로 잘 관리하여 원활한 학교생활과 긍정적인 자아심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아름다운 장수 도심환경 조성

### 꽃묘 13만주 마을에 공급

장수군은 15일 군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된 꽃묘 13만주를 읍·면 시가지와 마을에 공급하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지난해 번안면 대련리에 위치한 폐교를 활용해 양묘장을 조성하고 연간 100만본의 꽃묘 생산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꽃묘 40만주를 생산해 시가지와 가로화단 등에 식재했으며 올해에는 첨단하우스를 신축해 년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꽃묘 분양을 희망하는 마을에 연중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13회 장수한우양사과랑축제 행사장도 양묘장에서 생산된 메리골드, 백일홍 등 붉은색 꽃을 식재해 장수를 찾아온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